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고사 (인문 사회) 연습문제 4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Gerald Wilkinson, a biologist who returned to California in 1983 aft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n Costa Rica*, reported some gruesome stories. The vampire bat* he studied in Costa Rica was hanging from an old tree during the day, and then, at night, he secretly visits the animals, puts a small incision in his skin and quietly sucks blood. However, even if they fail to find the right person or find the right person, they are often caught by their opponents and cannot suck their blood, so they often lead an unstable life. Experienced bats experience this misery for about a day every 10 days, but younger and inexperienced bats starve more often. A bat is in danger of starvation if it fails to eat blood for 60 hours.

Fortunately, however, bats can soak up more than a day's worth of blood and then vomit the surplus again and give it to other bats. There is a good solution, but from a bat's point of view, it is a dilemma. Bats that share extra blood are more beneficial than bats that do not. But bats that only get food but not give it benefit the most, and bats that only give but not receive the most.

Bats tend to live together in the same place, where they have a fairly long life span of more than eight years, so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repeat games with a particular opponent several times. Statistically, bats living in a place are not close relatives, so their generosity cannot be explained as kinship. Wilkinson thought bats were playing counter-match games. Bats that provided blood in the past are rewarded with blood from their opponents. The bat that did not give the rest of the blood does not get blood next time. Bats seem to adhere faithfully to the rule, and the act of mending each other's hair* is probably meant to enforce it. They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stomachs that store blood when grooming each other's feathers. For that reason, it is difficult not to be caught by other bats in a stomach bulging with predatory food. Bats who cheat are easily caught.

- * Costa Rica : 코스타리카 * vampire bat : 흡혈박쥐
- * mending ~ hair : 털손질 * bulging : 볼록해진

제시문 <나>

심리학적,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인간성의 가장 깊은 본질은 원초적 성격을 가진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이 가진 충동은 모두 비슷하며, 그 목적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충동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충동이 인간 공동체의 욕구 및 요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충동과 그 발현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사회가 악이라고 비난하는 충동, 대표적으로 이기적인 충동과 잔인한 충동





들과 같은 것들은 이러한 원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악한’ 본능을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 즉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다. 내적 요인은 에로티시즘 —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랑에 대한 욕망 — 이 악한(이기적인) 본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에로틱한’ 요소가 섞여들면, 이기적 본능은 ‘사회적’ 본능으로 바뀐다. 우리는 남에게 사랑 받는 것을 커다란 이익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 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익은 기꺼이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외적 요인은 가정교육이 행사하는 강박이다. 가정교육은 문화적 환경의 요구를 나타내며, 성장한 뒤에는 그 환경의 직접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외적 요인을 이룬다. 문명은 본능의 만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고 문명세계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외적 강박은 끊임없이 내적 강박으로 대체된다. 문명의 영향은 이기적인 경향에 에로틱한 요소를 첨가하여 그것을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경향으로 바꾸고 그런 변화는 계속 늘어난다. 결국 인간이 발달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내적 강박은 원래 — 즉 ‘인류의 역사’ 에서 보면 — 하나의 외적 요인에 불과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오늘날 태어나는 사람은 이기적 본능을 사회적 본능으로 바꾸는 경향을 어느 정도는 유전적 소질로 갖고 있다. 이러한 소질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이기적 본능을 사회적 본능으로 바꾼다. 본능을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룩해야 하는 일이다. 이처럼 인간은 당면한 문화적 환경의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문화적 역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제시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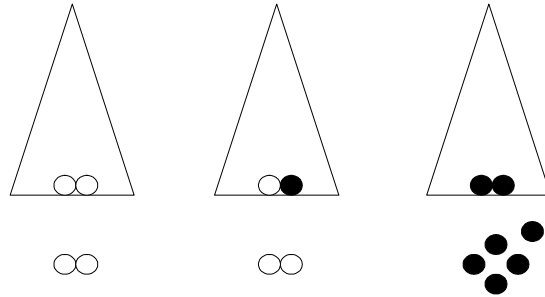
연민은 우리가 고통 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미개인에게는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게 나타나고, 문명인에게는 그 윤곽이 선명하지만 미약하게 나타난다.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스스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성향이 이성 지배하는 상태보다 자연 상태에서 훨씬 깊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기심을 날게 하는 것은 이성이다. 그리고 이성을 반추하는 것은 이기심을 강화시킨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자신을 흔들여놓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준다. 미개인에게는 이러한 훌륭한 재능이 없다. 이성적이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그는 바보스럽게도 항상 인간 본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연민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민은 각 개체 안에 있는 자기에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종 전체가 보존될 수 있게 해 주는 감정인 것이다. 남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것은 연민 때문이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연민이 법과 도덕과 미덕을 대신해주며, 이때에 아무도 연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한, 건장한 미개인이 약한 어린 아이나 노인이 어렵게 획득한 식량을 강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연민이다.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는 합리적이고 숭고한 정의의 원리 대신에, 그다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유용하다고 할 만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또 다른 원리인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하여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 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이 연민이다.

요컨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느끼게 되는 혐오감의 근원은 교묘한 논리에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감정 속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교육의 여러 원칙과는 별개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 덕을 얻는 것이 소크라테스나 그 부류 사람들의 덕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생존이 개인들의 추론에만 달려 있었다면 중으로서의 인간은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제시문 <라>

어느 가을 들녘을 상상해 보라. 한 해 동안 땀 흘려 추수를 하고 나서 벼짚들을 들판에 쌓아놓았다. 벼짚 더미는 들쥐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보금자리이다. 각 벼짚에 두 마리의 들쥐가 서식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쥐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같은 벼짚 내에 살고 있는 다른 쥐들을 돕는 이타적인 쥐들이며, 다른 부류는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이기적인 쥐들이다.



흰색 동그라미: 이기적인 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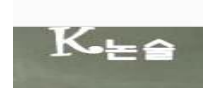
검은색 동그라미: 이타적인 쥐

[그림: 쥐의 생식 모형]

그림에서 세모는 벼짚을 나타낸다. 그 속에 그려진 조그만 동그라미는 각각의 벼짚 속에 서식하는 쥐들이다. 검은색은 이타적인 쥐를, 흰색은 이기적인 쥐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밑에 그려진 동그라미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벼짚을 제거했을 때 각 벼짚에서 나온 쥐들 중 1세대인 부모세대를 제외한 번식 결과를 나타낸다.

두 마리의 이기적인 쥐들에 의해 점유되었던 첫 번째 벼짚에서는 두 마리의 이기적인 쥐들이 나왔다. 한 마리의 이기적인 쥐와 한 마리의 이타적인 쥐에 의해 점유되었던 두 번째 벼짚을 제거하자 거기서도 두 마리의 이기적인 쥐들만 나왔다. 반면 두 마리의 이타적인 쥐들이 서식하던 벼짚에서는 올망졸망 많은 수의 이타적인 쥐들이 나왔다.

이 모형은 개인선택과 집단선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각 벼짚은 집단을 나타낸다. 벼짚 내부에서는 개인선택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벼짚을 보면 이기적인 쥐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타적인 쥐들이 모두 없어져버리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단선택과정을 통해서는 이타적인 쥐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타적인 쥐들이 많은 집단(벼짚), 정확히 말하면 이타적인 쥐들만 사는 벼짚에서는 더 많은 쥐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오직 두 마리의 쥐들만이 태어날 수 있었다. 각 벼짚에 이타적인 쥐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냐에 따라 집단이 얼마나 번성하게 되는지가 결정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이타적인 쥐의 비율이 증가할지 안 할지도 결정된다. 바로 이것이 집단선택과정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이타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2). 제시문 <가>, <나>, <다>의 관점 가운데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례에 나타난 개인과 기업의 기부 행태를 설명하시오.

급속한 경기 하강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부가 얼어붙고 있지만 개인, 특히 서민들의 기부는 오히려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 탓에 올겨울 기부 활동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자선단체들은 개인들의 소액 기부가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과거 외환위기에 드러났던 '작은 이타심'을 떠올리고 있다.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으레 기업들의 기부가 쇠도하곤 했지만 올해는 기부를 늘리거나 새로 기부에 나선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 기업과 개인, 사회단체 가운데 모금액의 70% 이상을 기업에 기대는 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희망 이웃돕기 캠페인(12월1일~다음해 1월31일)'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까 우려하고 있다. 기부총액이 매년 3~100.5%까지 늘었던 점과 올해의 경기침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금 목표를 2천85억원(작년 1천985억원)으로 작년보다 100억원 늘려 잡았지만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모금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들 어려워 기부를 늘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새로 가입하기도 주저해 부탁하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말했다. 모금회는 난국을 타개하려 모금 초점을 '부유한 개인'에 맞췄다. 1억원 이상 기부하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를 활성화하려고 최근에는 프라이빗뱅킹(PB) 센터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모금회는 전했다.

반면 개인기부가 모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굿네이버스와 같은 자선단체는 암울했던 예상을 뒤집는 '깜짝 활황'을 맞아 놀라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모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32%나 늘어나 올해 모금 목표액의 98%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측은 "원래 거의 전부 개인 기부인데 올 하반기 들어 더 늘어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금액에서 개인(최소 1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88%에서 올해 93%까지 늘었고 개인 평균 기부액도 작년 1만원에서 올해 2만3천원으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긴장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기부자들에게 물어보니 '우리도 힘든데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공통된 대답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과거 경제위기 때 서민들이 보인 동향과 같다"며 "그때도 기업들은 주저했지만 서민들은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자선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기업들이 기부와 관련한 장기 계획을 결정하는 데 주저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업 의존도가 높지 않아 사업 차질은 없다"며 "연말 행사인 '아기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은 개인들의 왕성한 참여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 비율이 반반인 아름다운재단은 "예년에는 10여 건의 고액기부 문이 있었지만 최근 두 달 간은 고액기부 상담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개인 기부자가 1만3천여명인데 이들은 거의 빠지는 법이 없어 경기침체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밝혔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주장(다수의 이타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집단만이 종족 번성의 가능성이 높다)을 평가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제시문 (가) 국문 번역

코스타리카에서 조사를 하고 1983년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생물학자 제럴드 윌킨슨은 조금은 성숙한 애기를 보고했다. 그가 코스타리카에서 연구한 흡혈박쥐는 낮에 고목에 매달려 있다가 밤이 되면 짐승들을 찾아가 몰래 살갓에 작은 절개창을 내고 조용히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찾았다 해도 상대에게 들켜서 피를 빨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를 자주 굶는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노련한 박쥐는 열흘에 하루 꼴로 이러한 불행을 겪지만 어리고 미숙한 박쥐는 보다 자주 굶게 된다. 박쥐는 60시간 동안 피를 먹지 못하면 아사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박쥐들은 하루 필요량 이상의 피를 빨아두었다가 잉여분을 다시 토해내서 다른 박쥐에게 줄 수가 있다. 이런 좋은 해결책이 있지만, 박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딜레마이다. 여분의 피를 서로 나누는 박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박쥐들보다 이익이다. 그러나 먹이를 얻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박쥐가 가장 큰 이익을 얻으며,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박쥐는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박쥐는 같은 장소에 여러 마리가 함께 서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수명은 8년 이상으로 제법 길기 때문에 특정 상대와 여러 차례 게임을 반복할 기회가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한 장소에 사는 박쥐들이 가까운 친족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야량을 친족애로 설명할 수는 없다. 윌킨슨은 박쥐들이 맞대응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피를 제공한 박쥐는 그 상대로부터 피를 보답 받는다. 남은 피를 주지 않은 박쥐는 다음에 피를 얻지 못한다. 박쥐들은 이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털을 손질해 주는 행위는 아마도 이 규칙을 강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서로의 깃털을 손질해 줄 때 피를 저장하는 위가 있는 부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 때문이라도 포식으로 볼록해진 배를 다른 박쥐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속임수를 쓰는 박쥐는 쉽게 적발된다.

[해설 강의]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이타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만약 모든 개인이 이기적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사회의 구성이 힘들거나 비록 사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타심은 공동체 구성의 필수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타심은 여러 근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타심은 때로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받은 교육과 사회적 압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이타심의 근원이 이기심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즉 이타심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을 비교하고 각 주장이 가진 현실적 적합성을 따져볼 것을 요구한다.

우선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이타심에 대한 다양한 주장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개인들이 이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며 이렇게 형성된 이타심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사회적 현상(기부행위)을 제시문에서 보여준 다양한 이타심의 동기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타심의 다양한 형태 및 근원에 대한 논의에 의거하여 생물계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 종합의 과정을 통해 답안의 독해력, 논리적 분석력, 창조적 사고력, 그리고 표현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설명

<가> 매트 리들리의 『이타적 유전자』(1996)의 일부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유전자는 물론 ‘이기적’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다. 여기에는 식물, 미생물, 개미, 꿀벌, 원숭이, 유인원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연계의 전술에서부터, 공동체의 생존을 도모하는 인간의 사회적 전략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인용한 부분에서는 흡혈박쥐가 굶주린 다른 박쥐에게 여분의 피를 제공했다가 자신이 굶주릴 때 되돌려 받는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박쥐가 다른 박쥐를 돕는 행위는 호혜성의 규칙에 바탕을 둔다. 박쥐는 이기적이지만 자신이 보답 받





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다른 박쥐에게 피를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1915년에 쓴 논문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의 일부이다. 동물성과 인간성 또는 야만과 문명을 대비시키는 프로이트는 본능적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달리 인간을 본능적 충동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 규범에도 복종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사회적 규약, 제도, 또는 관습을 통해 이기적 충동을 억압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나아가 인간이 문명화되면 될수록 이기적 본능이 이타적 방향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다.

<다> 장 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4)의 일부이다. 루소에 의하면 인간이 느끼는 연민의 정은 ‘자연의 상태’로 되돌아갈수록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외부를 둘러보아야 작동하는 연민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는 이성의 힘이 커지면서 약화되는 것이다. 비록 이성이 연민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인류가 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타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생각할 틈도 없이 나서서 도와주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연민의 감정이 인류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루소는 말한다.

<라> 최정규의 『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이론으로 푸는 인간 본성의 수수께끼』의 일부이다. 저자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타적 인간의 존재는 시장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출제된 부분에서는 존 메이나드 스미스의 모형을 설명하면서 이타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즉 벋짚 내부에서는 ‘개인선택’이 진행되어 이타적인 쥐들이 모두 없어져 버릴 수 있으나 ‘집단선택’ 과정을 통해 이타적인 쥐와 그 집단 전체는 매우 번성하게 된다.

문항 분석과 답안 방향

논제 1-1

제시문 가, 나, 다를 이타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읽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기를 요구한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동물(반드시 동물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동물의 사례로 입증되는 자연적 섭리 내지는 생태계의 본성으로도 해석 가능) 혹은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위의 동기와 작동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타적 행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상이한 설명을 내놓는다. 또 그러한 설명들은 인간이나 동물의 본성에 대한 특수한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기도 하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아래 제시한 차이점들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차이점들을 무원칙하게 나열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교하면 훌륭한 답안이 된다.

*** 동기의 차이**

- <가> 상대방을 돕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되므로(자기 중심적 호혜성)
- <나>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타자 혹은 사회의 인정)
- <다>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타자 지향적)

*** 작동 방식의 차이**

- <가> 내가 도움을 주면 상대도 내게 보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므로 남을 돕는 행위를 한다.
- <나> 가정교육과 문화적 환경(사회)의 강박이 스며들어(내면화되어) 이기적인 본능을 변화시키거나 포기하게 됨으로써 남을 돕는 행위를 하게 된다.
- <다>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 혹은 감정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 인간관의 차이**

<가> 동물(혹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개체들이 서로 돕거나 협동을 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인간에게는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본능적 충동이 있는데, 다른 욕망이나 사회의 요구가 이러한 이기적 본능의 만족을 포기하게 만든다. 본능이 제어되어야만 이타적 행위가 가능하다.

<다> 연민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타적 행위는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 이타적 행위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조건의 차이**

<가> 개체들은 게임(상호적 행위)의 반복을 통해 호혜성의 규칙을 습득하게 된다.

<나> 문명화될수록 이기적 본능을 이타적(사회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강화된다.

<다> 이성과 합리성, 추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이나 문명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을 억제한다.

[1-1의 가이드답안]

이타적 행위에 관한 제시문 (가)~(다)는 그것의 동기와 작동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제시문 (다)는 이타적 행위의 동기가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본다. 이는 상대방을 돕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가)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나)의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 즉 이타적 행위의 동기가 타자 지향에 있다고 보는 (다), 자기 중심적 호혜성이라는 (가), 그리고 타자 혹은 사회의 인정 지향이라는 (나)처럼 각자의 지향점, 즉 행위동기가 구분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이타적 행위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로 연결된다. 제시문 (나)는 가정교육과 문화적 환경이라는 사회의 강박이 내면화되어 이기적인 본능을 변화시키거나 포기하게 됨으로써 남을 돕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본다. 사회적 강제가 이타적 행위의 작동방식이라는 (나)의 설명은 자발적 측면을 강조하는 (다)와 (가)의 입장과는 대립된다. (다)는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 혹은 감정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발성을 강조한다. (가)의 이타적 행위 역시 자발성이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것은 ‘내가 도움을 주면 상대도 내게 보답할 것’이라는 호혜성에 대한 이성적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본성에 따른 (다)의 행위와는 구별된다.

또한 제시문들은 이타적 행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상이한 설명을 내놓는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이성은 이타적 행위를 활성화시키는 필수 조건이 된다. 이타적 행위를 강제하는 (나)의 사회적 학습이나 (가)의 반복을 통한 호혜성 규칙의 습득은 모두 인간의 이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다)는 이성을 토대로한 합리성과 추론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이나 문명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설명한다.

논제 1-2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 (나), (다) 가운데 선택해서 예시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를 요구한다. 여러 가지 답안의 버전이 가능한 열린 결말임을 알 수 있다.

*** (가)에 근거할 경우**

(가)의 관점에서 보면, 기부행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대방을 돕는다면 이후 자신이 어려울 때 상대방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 개인들의 기부행위가 활발해지는 이유는, 호혜성의 규칙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을 돕는 행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전체 경제의 차원에서 보자면, 다른 구성원들의 극한적 빈곤 상태는 자신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의 기부행위는 시혜-수혜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며 호혜의 논리가 작동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기업이 기부행위를 통해 얻는 직접적 혜택은 기업의 평판을 높이거나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이익과 연관된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장기적 이익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시에는 기업이 기부를 통해서 기부 대상과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든다.

*** (나)에 근거할 경우**

(나)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규약, 제도 또는 관습이 이기적 충동을 억압함으로써 기부행위가 가능해진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동체나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 충동을 억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회나 학교에서 ‘연대성’에 대한 요구 혹은 압력은 보통 기업보다는 개개인을 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도덕적 의무나 요구를 내면화한 개인들은 위기상황이 야기한 절박한 요청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영리적 주체인 기업의 경우는 위와 다르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 평판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영리적 욕구를 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기본적 욕구(경제이윤)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기업의 기부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시에 기업의 기부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다)에 근거할 경우**

(다)의 관점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고통 받는 다른 사람에 대해 생기는 연민에서 일어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거액기부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적·합리적 주체인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자신의 이익(이기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들에게서는 경제위기시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일시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보존을 위한 이기심이 커질 수도 있지만 타인의 고통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연민과 동정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자선냄비 옆을 지날 때, 자신의 손익 계산을 하기 전에 손은 이미 지갑을 열려고 움직일 수 있다.

논제 2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이타성에 대한 논의에 의거하여 (라)에서 도출한 주장을 평가하기를 요구한다.

*** (가)에 근거한 평가**

(가)도 다수의 쥐들이 이타적이어야만 종족 전체가 번성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환관계 게임의 반복을 통해서 이타적 행위가 생겨난다는 (가)에 주장에 따르면, 집단 전체의 번성은 이기적인 쥐와 이타적인 쥐가 각각 얼마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반복적인 호혜성 게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종족번성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이타적 쥐의 수가 많을 때보다는 이기적 계산을 통해 이타성을 키워가는 호혜성의 반복 실험이 종족 전체에 공유될 때라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 (나)에 근거한 평가**

(나)에 따르면 교육, 훈련 등 일련의 문명과 도덕 학습을 통해 이기심을 극복함으로써 이타성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빛깔의 이타적인 쥐들이 (이기적인 쥐들에게 양보하느라 먹지도 못하고) 멸종될 것이라는 (라)의 주장은 이러한 문명 훈련, 학습을 통한 이타성 증진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타적인 쥐들만 사는 집단보다 이타적 쥐와 이기적 쥐가 함께 사는 집단에서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집단이 더 번식할 가능





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나)에 의거하면, 종족의 번성 여부는 이타적인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지느냐와 학습결과의 내면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 (다)에 근거한 평가**

(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연민이 자기애의 수위를 조절하여 종 전체를 보존해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다) 자체가 연민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라)의 이타심과 연결한다면, 부합된다는 평가 결과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습이 아닌 본성 또는 자연적 감정에 의해서 이타성이 생기게 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을 위해 계속 희생하는 다수의 이타적 쥐로 구성된 집단만이 종족 번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약육강식의 동물생태계에서 이타적인 종이 이기적인 종보다 종족번식이 용이하다는 가정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된 환경의 배양능력을 고려하면 이기적인 종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고 따라서 생존과 번성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